





보름달이 떠 있는 바이칼 호수를 걸으며  
어머니께서 물으셨다.

“저기 불빛이 보이는 곳이 어디니?”

내가 대답했다.

“저 너머에 몽골의 대평원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아들아, 저기까지 걸어가볼래?”

정형민 감독





## INFORMATION

제 목	카일라스 가는 길 (JOURNEY TO KAILASH)
제 작	빅트리
배급/투자	(주)영화사 진진
감 독	정형민
출 연	이춘숙
장 르	다큐멘터리
상영시간	89분
관람등급	전체 관람가
개봉일	2020년 9월 3일
페이스북	<a href="http://WWW.FACEBOOK.COM/JINJINPICTURES">WWW.FACEBOOK.COM/JINJINPICTURES</a>
인스타그램	@JINJIN_PICTURES
트위터	@JINJINPIC



---

## SYNOPSIS

‘언제 또 이곳에 올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망구’

할머니의 '파미르 일기' 중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고자 했던 어머니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과 푸른 새벽을 만날 수 있는  
티베트의 성지 카일라스로 떠났다.  
바이칼 호수에서 티베트까지, 인생을 닮은 아름다운 길 위에서

“여든네 살 생일을 정말 축하합니다!”



## ABOUT MOVI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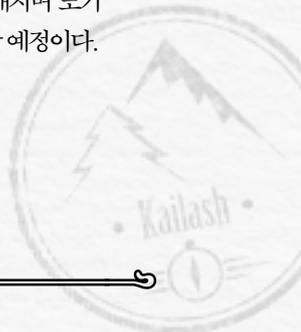
### 제3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리미어 상영 불교의 성지, 우주의 중심 '수미산' 카일라스로 떠나는 순례의 여정! 〈나의 산티아고〉를 잇는 한국판 순례 영화의 탄생!

한국인에게 가장 익숙한 순례길은 산티아고 순례길일 것이다. 199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티아고 순례길은 영화 〈나의 산티아고〉, 예능 〈스페인 하숙〉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목받으며 한국인만 매해 몇 천명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순례지이다. 산티아고가 유럽의 대표적인 순례길이라면 아시아의 산티아고는 불교의 성지인 카일라스이다. 티베트에 위치한 카일라스는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일컫는 수미산으로, 힌두교, 라마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은 마흔여덟 살 정형민 감독과 여든네살의 이춘숙 할머니가 아시아의 성지임에도 우리에게 낯선, 카일라스를 향한 순례를 시작하며 시작된다.

모험의 주인공이자 정형민 감독의 어머니인 이춘숙 할머니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꿈을 잠시 잊고 살아온 평범한 한국의 어머니로, 어린 자녀들이 장성한 후에는 경북 봉화 산골마을에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먹도록 세상을 위해서 한 일이 없으며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도 하고, 또 '세계테마기행', '걸어서 세계속으로' 등의 방송을 통해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며 몽클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다. 2014년, 히말라야에 다녀온 정형민 감독이 까그베니 마을에 있는 오래된 절 이야기를 하자 이춘숙 할머니는 함께 순례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한다. 이춘숙 할머니는 이전까지 해외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다. 정형민 감독이 지난 20년 동안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을 하자고 권했지만 한결같이 거절해 왔다. 그런 어머니가 먼저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힌 순례길에 기뻐던 정형민 감독은 주변의 만류를 뒤로 한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처음에는 히말라야로, 그다음에는 카일라스로 떠난다. 이춘숙 할머니에게 이 순례여정은 청년 시절의 열정과 꿈이자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올리겠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바이칼 호수, 몽골 대초원, 고비 사막, 알타이 산맥, 타클라마칸 사막, 파미르 고원, 그리고 티베트 카일라스 산까지, 중년의 아들과 노년의 어머니가 함께 한 순례의 여정은 인생의 굴곡을 닮은 길과 뜻밖의 인연들이 연결되면서 삶을 되짚어보게 만든다. 더불어 카메라는 길 위의 어머니를 애뜻하게, 따스하게 담으며 함께 여행을 하는 듯한 앵글로 경탄을 자아내는 풍경을 선사한다. 여든넷의 나이에 20,000km에 달하는 길을 육로로 완주한 할머니의 여정은 영화를 통해 관객에게 전해지며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청춘인 인생의 아름다움을 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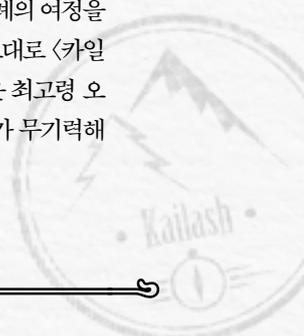


## ABOUT MOVIE #02

### 경북 봉화 산골마을 빨간 모자 할머니, 젊은 시절의 꿈을 찾아 카일라스를 향한 모험을 시작하기까지! 최고령 오지 탐험가 이춘숙 할머니의 특별한 순례기

'밀레니엄 세대'로 표상되는 새로운 성격의 청년들이 등장한 지금, 노년 세대도 다른 이전의 장년층과는 다른 정체성을 보인다. 이들은 경제 일선에서 은퇴한 뒤 자금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새로운 직업을 갖거나 취미생활에 열중하는 신노년층으로 오파 세대(Old People With Active Lives)로 불린다. 연륜에서 오는 전문성으로 소통하거나, 살아도 살야도 새로운 인생의 맛을 전하는 실버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등 오파 세대는 '꼰대'가 아닌 롤모델로 노년의 삶의 즐거움을 주체적으로 누린다. <카일라스 가는 길>의 주인공, 이춘숙 할머니도 여든이 넘은 나이에 꿈을 이룬 최고령 오지 탐험가이자 새로운 오파 세대의 일원으로 다가간다. 바이칼 호수부터 티베트 카일라스에 이르기까지, 육로 20,000km에 이르는 길을 완주한 모험의 주체가 바로 여든넷의 할머니라는 점은 놀라움과 경탄을 자아낸다. 미디어에서 '할머니'는 대체로 자녀, 손자들에게 헌신하는 넓은 의미의 어머니상으로 그려지지만 <카일라스 가는 길>의 이춘숙 할머니는 다르다. 넘치는 모성애로 여행에서 만나는 이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면서도 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여정의 과정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신만의 언어로 기록한다. 80여 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여전히 할머니는 새로운 세상과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상에 대해 배운다.

1934년생인 이춘숙 할머니는 당시 흔치 않았던 대학을 다닌 신여성이자 농사교도소 초대 공무원으로 농촌계몽운동에 힘쓴 이력을 갖고 있다. 25살 때 농촌계몽운동 홍보 다큐 '농부를 돕는 사람들'에 담긴 이춘숙 할머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정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이춘숙 할머니는 독신주의자로 평생을 계몽운동에 헌신하려 하였으나 이십 대 후반에 사랑에 빠지고 서른에 국어학자 이희승 박사의 주례로 결혼을 한다. 하지만 37살에 남편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이후 두 아이를 돌보기 위해 사직하고 꿈을 묻어둔 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썼다. 정형민 감독에게 함께 여행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던 2014년, 이춘숙 할머니는 여든한 살이었다. 잊고 있던 꿈에 대한 열정으로 2014년 히말라야와 그 너머 무스탕으로 순례를, 2017년 바이칼 호수를 시작으로 고비 사막과 파미르 고원을 거쳐 티베트의 성산 카일라스로 향하는 순례를 떠난다. 정형민 감독은 '어머니의 순례는 치열한 삶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노인을 세상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똑같은 인간이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로 존경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례의 여정을 담은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감독의 기획 의도대로 <카일라스 가는 길> 도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젊은 최고령 오지 탐험가 할머니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무기력해지는 시대에 큰 에너지를 전할 예정이다.





## ABOUT MOVIE #03

### 바이칼 호수, 고비사막, 알타이 산맥, 파미르 고원, 그리고 카일라스 산! 하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과 푸른 새벽 하늘 일생일대의 순례를 스크린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로드무비

〈카일라스 가는 길〉에 담긴 장소들은 정형민 감독과 이춘숙 할머니가 함께 한 순례와 여행의 기억들이 모두 응축되어 있다. 2017년에 떠난 티베트 카일라스를 향한 순례가 주로 담겨 있지만 2014년, 이춘숙 할머니와 정형민 감독의 첫 순례인 히말라야 순례의 영상도 담겨 있다. 분절된 여행의 시간은 영화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리러 떠나는 순례의 길'로서 연결되며 여정의 완성에서 쌓아온 감정을 감동으로 바꾼다.

정형민 감독과 이춘숙 할머니의 카일라스 순례는 2017년 봄, 바이칼 호수를 다녀온 후 같은 해 9월 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다시 시작해서 몽골을 종단, 고비 사막에서 알타이 산맥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파미르 고원을 넘었고 다시 중국의 신장 자치구로 건너가서 타클라마칸 사막과 티베트 고원을 지나 목적지인 성스러운 마나사르와르 호수와 카일라스 산에 도착한다. 카일라스 순례를 마친 후에도 육로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 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가 11월 14일이었다. 3개월의 기간 동안 육로 20,000km에 육박하는 여정을 마흔여덟 중년의 아들과 여든넷 노년의 할머니가 함께 완주한 것이다. 정형민 감독은 히말라야에서 카일라스까지, 어머니보다 연장자인 여행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유럽과 일본에서 온 순례자들도 최고령이 70대 중반으로, 이춘숙 할머니는 최고

령 오지 탐험가 중 한 사람인 셈이다. 순례의 길에서 할머니를 만난 세계의 여행자들은 늘 같은 반응을 보였다. 마치 슈퍼히어로를 만난 듯, 손을 잡고 감격하고, '슈퍼 마마'라고 부르고, 때로는 기념사진 촬영을 원하고 선물까지 건넸다. 이들의 반응은 단순히 노인이 순례의 길을 오르는 것에서 오는 감격이 아닌 할머니의 지치지 않는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에서 오는 감격일 것이다.

정형민 감독은 여행과 순례의 차이에 대해 '여행은 언제든 발길을 멈추고 돌아올 수 있지만, 순례는 일생에 한번 온 정성을 모아 떠나야 하고 그 길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일라스 가는 길〉은 일생에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바이칼 호수와 파미르 고원, 그리고 카일라스 산의 광활한 풍경과 그 길을 완성하는 얼굴들을 담으며 순례길을 함께 걷는 듯한 감각을 선사하며 새로운 한국판 순례 영화로 다가간다.





# JOURNEY to KAILASH

#01

## 바이칼 호수 (Baikal L.)

'성스러운 바다', '세계의 민물 창고', '시베리아의 푸른 눈', 시베리아의 진주' 등으로 불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의 호수. 러시아 이르쿠츠크 시 부근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넓은 호수이다. 최대 깊이는 1,621m로 세계에서 가장 깊으며, 주변은 2,000m급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출처 : 윤경철, 『대단한 지구여행, 푸른길, 2011』)





---

## JOURNEY to KAILASH

#02

### 고비 사막 (Gobi Des.)

몽골에 위치한 동서 길이가 1600km, 남북 500~1000km 범위의 거대한 사막. 고비란 몽골어로 '풀이 잘 자라지 않는 거친 땅'이란 뜻으로, 이 말의 뜻처럼 고비사막 대부분의 지역은 암석사막을 이루어 모래사막으로 된 지역은 매우 적고, 넓은 초원지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 JOURNEY to KAILASH

#03

### 알타이 산맥 (Altai Mts.)

오랜 세월, '유목민들의 요람'이었던 고대 중국 유목민의 고향. 중앙아시아에서 북동아시아에 걸쳐있는 산맥으로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이 만나는 지역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가로지른다. '알타이'는 카자흐어와 몽골어 모두 '금'을 의미하며 실제로도 금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출처 : 마이클 브라이언트,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 절경 1001』, 마로니에북스, 2008)





---

## JOURNEY to KAILASH

#04

### 파미르 고원 (Pamir Plat.)

아시아 대륙 중앙부에 있는 대고원. 평균 고도 5,000m로 히말라야 산맥과 힌두쿠시 산맥, 툰산 산맥 등 대산맥들을 품고 있는 '세계의 지붕'이다. 파미르는 옛 페르시아 말로 '미트라(태양)신의 자리'를 뜻하는 'Pa-imhr'가 어원이라는 설이 있다. 투르키스탄을 동서로 가로지르고,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서 문명교류의 대동맥인 오아시스로의 필수 경유지로서 오아시스로 북도와 남도가 이 고원을 가로지른다.

(출처 : 정수일, 『실크로드 사진, 창비, 2013,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

## JOURNEY to KAILASH

#05

### 카일라스 산 (Kailash Mts.)

티베트 남서부 마나사로와르호 북쪽에 있는 카일라스 산맥 중서부에 위치한 해발 6,714m의 산.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상의 중심이자 우주의 근원으로 보는 성산, '수미산'으로 라마교와 힌두교의 성지이기도 하다. 신의 영역이라는 믿음 때문에 정상 등반은 허용되지 않지만, 산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순례인 '카일라스코라'는 허용된다. 해발 4500m에서 5600m까지를 오르고 내리는 만큼 고산병이 올 수 있는 코스이나 현생의 죄업을 씻고 내세의 안녕과 영생을 기원하는 성스러운 순례 여정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이영철, '영혼 씻어내는 성스러운 여정, '카일라스 코라'', 제주일보, 2020.01.22)



---

# ADVENTERER

## 이춘숙



1934년 출생, 진주여고,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수학했다. 1956년 경남 진양군의 농사교도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초대 여성 공무원으로 평생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할 꿈을 품었지만 1970년, 서른일곱의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갓난아기였던 정형민 감독과 다섯 살 딸을 돌보기 위해 사직한다. 이후 젊은 시절의 꿈을 묻어두고 갖은일을 하며 자녀 양육에 힘쓰다 자녀들이 장성하고 나니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TV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아시아의 오지 사람들을 보면 몽클함을 느끼고 세상을 위해 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부끄러움을 느끼던 중, 2014년 아들 정형민 감독에게서 히말라야 까그베니 마을과 그곳의 사찰 이야기를 듣고 순례를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여든한 살의 나이에 익숙한 세상 밖으로 모험을 시작한다.



## INTERVIEW

### 이 춘 숙

**Q. 어떻게 카일라스 순례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여든 살이 되도록 해외여행은 가본 적도 없고, 국내 여행도 철순이 되었을 때 여동생들과 해남이랑 제주도에 갔던 기억 정도가 납니다. 우리 세대가 힘든 시기에 자식들 키우느라 호강 같은 것 상상하기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세상을 위해 아무 한 일이 없어서 부끄럽더군요. 그런데 히말라야의 절에는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하기도 했구요. '세계테마기행'이랑 '걸어서 세계속으로'를 종종 보는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오지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몽클할 때가 많았죠.

**Q. 고령이신 만큼 카일라스 순례 여행이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에 먼저 히말라야로 순례를 다녀왔고, 2017년에 카일라스 순례를 떠났습니다. 카일라스 순례를 떠날 때에는 히말라야 여정보다 훨씬 길어서 아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동네 뒷산을 오르면서 제 몸을 추스렸지요.

**Q. 카일라스 순례길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과 느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너무나 아름다웠던 바이칼 호수가 기억에 남지만, 저는 파미르 고원에서 만났던 가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물을 기르다가 생활하고, 빵을 차에 찍어서 먹는 게 다였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우리 한국이 참 잘 사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 세상에 밥 굶는 사람들이 없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도 많이 올렸죠. 우리가 조금씩만 아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 세 끼 밥 굶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Q. 여든넷 생일을 순례길 위에서 맞이한 소감은 어땠는지요**

파미르 고원을 넘는데, 눈 치우는 젊은이들이 제 생일을 축하해줬어요. 폭설이 내려서 잠시 얘기만 나누었는데, 그런 험한 곳에서 고생하는데 막걸리 사 먹으라고 용돈을 못 준 게 너무 후회됩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파미르 고개를 넘을 수 있었던 것도 그 젊은이들 덕분이잖아요. 이 나이에 세상 구경하는 할망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고맙고 감사하지요.



---

## DIRECTOR

정형민 감독



경북대학교와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  
문화인류학자이자 오지 탐험가로,  
팔손의 어머니와 함께 했던 4년의 여정을 영화로 담았다.  
현재 알래스카에서 북미 선주민에 관한 다큐를 제작 중에 있다.

### Filmography

〈카일라스 가는 길〉(2018)  
〈무스탕 가는 길〉(2017)

## INTERVIEW

정 형 민 감독

**Q. 여든이 넘는 어머니와 카일라스로 순례를 떠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두 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빨리 커서 어머니를 지켜 드려야지 생각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게 쉽지 않더군요. 어디를 여행을 가자고 해도,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가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2014년에 혼자서 히말라야를 다녀온 후에, 그곳 까그베니 마을에 있는 오래된 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너무나 기뻐서 주변에서 만류하는데도, 어머니를 모시고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날, 어머니께서 내년에는 어디를 가느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불교 성지들을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일라스 순례는 2017년에 다녀왔는데, 그때 어머니 연세가 여든넷이셨어요. 어쩌면 마지막 순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티베트 사람들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카일라스 산을 목표로 정했고, 어머니와 오래 걷고 싶어서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해, 고비사막, 알타이 산맥, 파미르 고원을 지나는 루트를 선택했습니다.

**Q. 청년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만큼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었는데 우려는 없었는지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고산증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력은 저보다 훨씬 더 강하시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요. 그냥 동네 뒷산 산책한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 가고, 진짜 문제가 생기면 돌아오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목적지까지 간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길을 걷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목표였으니까요.

**Q. 흔히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관광이 아닌 모험이 될 수 있는 순례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늘 어머니께서 언제든 세상을 떠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보내드리면 좋을까 가끔 저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관광은 가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어머니는 원래 독신주의자였습니다. 농촌계몽운동에 헌신하시려고 했는데, 이십 대 후반에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셔서,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린 저희들을 돌보기 위해 농촌지도소에 사표를 내셔야만 했어요. 그렇게 당신의 꿈을 포기하셨지만,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때의 열정과 꿈이 가슴 깊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의 오지를 누비시면서, 젊은 시절의 그 꿈을 되살리고 계시나봐요. 어릴 때,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면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고아원에 데려가곤 하셨죠. 고아원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요. 그때 늘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너는 한 끼 굶더라도 힘든 사람들 돕고 살아야 된다.” 지난 20년 가까이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을 가자고 했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허물며 한 번 외식하러 가는 것도 일년에 한두 번 간신히 모시고 가죠. 다행히 힘든 순례는 너무 좋아하셔서 소녀처럼 늘 기다리세요.



## INTERVIEW

정형민 감독

**Q. 여정 만으로도 힘들 수 있는 코스인데 이 과정을 영화로 남기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노인이라고 하면 삶의 뒀안길에서 조용히 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존재로... 그런데 어머니를 보니, 우리보다 더 열정적이고, 세상에 대한 사랑도 더 깊고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보통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보면 젊은 노인들이 나와서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 또한 노인들을 여전히 '노인'이라는 범주 속에 단순하게 정형화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편하게 사시는 것처럼 미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실제로 노인 분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이유는 여전히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삶을 마주하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우리 옆집만 해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시는데, 지금도 열심히 농사를 지으세요. 두 분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천 평이 넘는 밭이 경사가 저서 기계도 못 쓰고, 두 분이 교대로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이번 장마에 마당에 도랑을 치다가 겨우 한 시간 하고 나가 떨어졌는데, 두 분은 그 넓은 밭을 관우와 장비처럼 철옹성처럼 지키세요. 저희 어머니의 순례도 치열한 삶과 열정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세대들이 노인들을 그저 '편안하게 말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상과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자, 우리가 인생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멘토로 존경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Q. 이번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의 촬영 기간은 어떻게 되었고, 순례의 여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카일라스 순례만 보자면, 2017년 봄에 바이칼 호수를 다녀온 후, 그 해 9월 1일에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시작해서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귀국했을 때가 11월 14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개월 정도 됩니다. 여정은 바이칼 호수에서 시작해서, 몽골을 종단했고, 고비 사막에서 알타이 산맥으로 갔어요. 그리고 알타이 산맥에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거쳐 파미르 고원을 넘었습니다. 다시 중국의 신장 자치구로 건너가서 타클라마칸 사막과 티베트 고원을 지나 목적지인 카일라스 산에 도착했죠. 카일라스 순례를 마친 후에도 육로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카트만두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화에는 2014년의 히말라야 순례가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던 첫 순례지요. 그리고 2015년에 불교왕국 무스탕, 2016년에 천불 천탑의 나라 미얀마 순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순례를 계속 이어갔는데, 2014년과 2015년에 히말라야의 4천 미터 고개들을 넘어야 했고, 2017년에는 티베트에서 5천 미터 고개들을 넘었습니다.

**Q. 전작 <무스탕 가는 길>과 <카일라스 가는 길> 사이에 영화를 찍으며, 순례를 떠나며 변한 것과 같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화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여든한 살의 어머니가 여든넷 살이 되신 것, 그리고 마흔다섯 살이었던 제가 마흔여덟 살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지탐험 초짜인 어머니께서 어엿한 오지탐험 전문가로 변모한 것이네요. 진짜로 히말라야에서부터 카일라스까지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은 여행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유럽과 일본에서 오신 어르신들을 종종 만났는데, 최고령이신 분들이 철십 대 중반이었죠. 모두 어머니 손을 잡고 감격해하셨고, 기념사진 촬영도 원하시고 선물까지 주시더군요. 변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과 걱정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솔직히 말하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 INTERVIEW

정 형 민 감독

**Q. 영화 <카일라스 가는 길>에서 감독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은 많습디만, 두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예고편 영상에도 나오는데, 파미르 고원에서 여성 자전거 여행자를 안아주는 장면이에요. 정말 할머니가 손녀를 걱정하는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카일라스 산에 도착해서 디라북 사원(5100m)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어머니의 평화로운 얼굴과 바람과 햇살이 어머니를 어루만지는 장면이 참 좋습니다.

**Q. 산티아고 순례길에 비해 불교의 성지인 카일라스 순례길은 한국인들에게 많이 낯선 곳입니다. '카일라스'라는 장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원래 기독교와 관계가 있고, 1년에 한국인만 해도 6천 명 정도가 방문하는 곳입니다. 저희 순례는 어머니께서 독실한 불교신자이셔서 불교 성지 순례를 이어왔는데, 그곳이 모두 아시아의 오지여서 여행자들도 거의 찾지 않는 곳입니다.

**Q. 어머니와의 여행의 과정에서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 욕심내지 않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는 날을 잘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평생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아오셨는데, 조금씩 그 슬픔들을 길 위에서 씻어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Q. 어머니와 다음 여행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있다면 이것이 차기작 계획과도 연결되는지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북인도의 보드가야에 가서 빈민들에게 쌀과 담요를 나누어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노령연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모아오고 계세요. 이 보드가야 순례가 어머니께 제일 중요한 여정이 되겠지요. 이 보드가야 여정을 카메라에 담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들을 담은 "소멸해가는 당신을 위하여"라는 작품을 구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삶과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으려고 합니다.

**Q. <카일라스 가는 길>을 관객들이 어떻게 보길 바라는지, 극장에서 영화를 만날 관객에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객 분들께서 용기와 희망의 불씨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을 만나보시고,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도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었다.  
왜 노모를 모시고 험한 오지로 가느냐고.

나는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래 걷고 싶었고,

티베트의 성스러운 산 카일라스까지  
지구의 아름다운 길이 이어져 있었다.

*Director's note*



# 카일라스 가는 길

〈카일라스 가는 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영화사 진진(TEL: 02-3672-0181)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자료는 G파일(WWW.GFILE.C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G파일] ID : JINEPK / PW : JINJIN!0